

전남지사체 민생지원금 1517억 '엇갈린 반응'

9개 시·군에서 주민 1인당 10만원~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소비·내수 활성화 마중물”·“지방선거용 선심 행정” 찬반 양론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인가, 선거용 선심성 지원인가”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 19 때보다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급한 자치단체 별로도 지급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원금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자치단체들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무리한 재정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영광군이 최대 50만원을 필두로 전남지역 9개 시·군이 설 연휴를 전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소비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이를 합산하면 1517억원에 달한다.

영광군은 지난해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 당시 주민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설과 올해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주민 5만여명에게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소요 예산만 5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성군 또한 발빠르게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보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019

년부터 모은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예산 112억원을 들여 지급 중이다.

나주시는 전남 5개 시 중 유일하게 예산 117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나주 민생지원금은 온라인 접수를 거쳐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신청·지급한다.

해남군의 경우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1인당 해남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 군의회 개원과 함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흥군도 182억원의 예산을 들여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6만6000여명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곡성군은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주민 2만 7000여 명에게 20만원씩 민생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군도 재정안정화 기금 중 약 57억원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도아리랑 상품권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완도군 역시 주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2월 조례 제정 예산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총 지원금 규모는 약 91억원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무안군은 92억원을 들여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월

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3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잇따른 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역민들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지원금으로 베풀 곁에 선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결정했다”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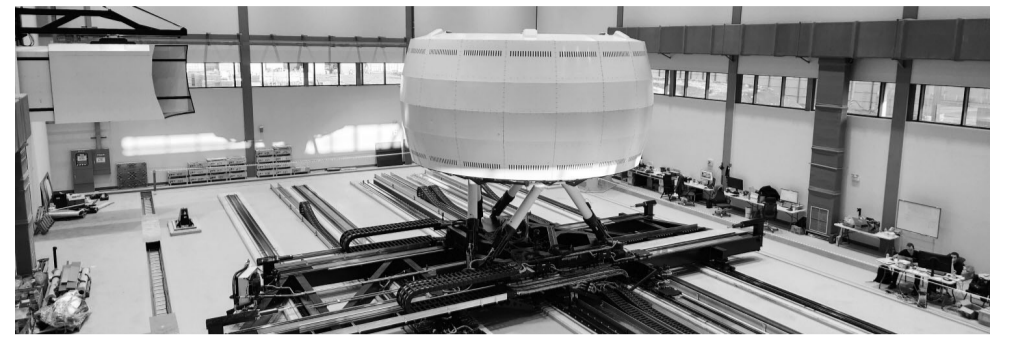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 중 나주와 영광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집행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지원금 ‘살포’가 내년 6월 3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매수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 때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공약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 3년 연임 제한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고, 전부 민주당 소속 초·재선 지자체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금은 효과가 크지 않고 다른 전남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선심성 지원”이라며 “특히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단체의 지원금 지급은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SOC 프로젝트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가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 내에 설치한 대형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광주시 제공)

국내 최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본격 시동

광주시,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 구축...하반기 정식 서비스

자율주행 시험무대 역할 주도

광주시는 4일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 ‘대형 자율주행 드라이빙(운행) 시뮬레이터(모의 실험 장치)’를 구축하고 올 하반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가상 현실로 구현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검증할 수 있는 첨단장비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실증기반 구축 사업 중 하나로, 총 77종의 실증 장비(자동차 25종·헬스케어 26종·에너지 26종) 가운데 1종이다.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DILs)’, ‘실제 차량 시뮬레이터(VILs)’, ‘가상 환경 생성 시뮬레이터(SILs)’로 구성돼 있다.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의 인공지능 실증기반 구축 사업 중 하나이며, 총 77종의 실증장비(자동차 25종, 헬스케어 26종, 에너지 26종) 가운데 1종이다.

특히 운전자 중심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DILs)’는 다양한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검증이 가능하다. 또 이미 구축된 고사양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연동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가상도로 환경에서 레벨4(Lv.4)의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도 검증할 수 있다. 레벨4(Lv.4)는 특정 구간에서 제어권 전환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이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집적단지 실증동에 설치기 완료돼 오는 3월까지 운영 교육, 시운전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포에서 첫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실제 차량 시뮬레이터’는 실제와 유사한 도로 주행 환경을 구축해 차량과 도로 조건, 교통 시설물, 트래픽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장비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실증동 건축 일정에 맞춰 오는 4월 설치될 예정이다. 가상환경 생성 시뮬레이터’는 가상환경에서 날씨, 차량 종류 등 다양한 주행환경을 생성하고 실제 차량으로 테스트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시험하는 장비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시교육청·담양·진도·화순, 민원서비스 ‘최고 등급’

권익위·행안부, 행정기관 종합평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담양·진도·화순군이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일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서구·남구·북

구가, 전남에선 담양·진도·화순이 전국 상위 10% 기관에 부여하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례 평가로, 평가 등급은 상위 10%인 ‘가 등급’부터 하위 10%인 ‘마 등급’까지 다섯 개로 나뉜다. 상위 10% 초과 30% 이하인 ‘나 등급’에는 광주 광산구와 여수·고흥·장성·해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가 등급’을, 금융위원회·대검찰청·외교부 등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과 우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수소승용차 150대 구매보조금 지원

1대당 3250만원...12월 5일까지
광주시는 “오는 12월 5일까지 친환경 수소승용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승용차는 총 150대이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승용차 1대당 32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수소승용차 15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 대상자에게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일까지 90일 이상 광주

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다. 1인당 1대 지원한다.

신청일은 오는 12월 5일까지이며, 광주지역 현대자동차점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상담·구매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차량이 2년 내 말소(수출 말소는 5년 내)될 경우 차량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보조금 반납 의무는 회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사·공고’를 참

고하거나 인근 현대자동차 대리점 등 차량 제조·판매사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615억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1333대, 수소버스 43대, 수소정소차 4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따른 총미세먼지 저감량은 15.7t, 온실가스 감축량은 2795t으로 추산된다. 현재 광주에는 7개 수소충전소(진곡·동곡·임암·백진·월출·장동·신촌)가 운영되고 있다.

나병준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올해는 수소차 신형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조기에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홍장원 ‘씩 다 잡아들여라’

▶1면에서 계속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국회 측 법률대리인 질문에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이날 헌재에서 기존 증언을 고수했다. 홍 전 차장은 “전화번호 ‘대통령님’이라고 (발신자) 표시가 뜬다”면서 “윤 대통령이 ‘씩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에게 누굴 잡으라는 건지 묻지 못했고, 목적이 없어 누굴 잡아들여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여인형 사령관에게 대통령직 시 언급하자 체포 명단을 불러 줬고 기억나는대로 적어보니 14·16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체포명단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재는 4차 변론기일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 관할대행은 변론 시작에 앞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단만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본인(윤 대통령)이 원할 경우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드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는 “영터리 투표가 많아서 내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권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5년 01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100,000,000원을 금 6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중 4,0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2,500원으로 매수하여 인의 소각하고, 발행 주식총수 10,000주를 6,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5년 2월 5일
주식회사 새벽로지스
전라남도 곡성군 옥재면 임면로 53
대표이사 김홍우

조직변경공고

당 영농조합법인은 2024년 12월 14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일치로 그린영농조합법인을 주식회사 그린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그린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599(안창동)
대표 조합원 민정성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